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국민이 보는 정책창

2017년 9월 13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13.(수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9. 12.(화)	담당부서	동북아통상과 활용촉진과
담당과장	조수정 과장(044-203-5690) 박형민 과장(044-203-4150)	담 당 자	김민혜 서기관(044-203-5699) 신영수 사무관(044-203-4151)

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 강화키로

- 범부처 및 지원기관 합동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개최 -
- 글로벌파트너링(GP)활용 中 진출 자동차부품 업체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 강화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:백운규)는 9.13.(수) **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**로 「**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**」를 개최했다.

○ 이번 회의는 **사드 4기 임시 배치**(9.7) **이후 열린 첫 '한중통상점검 TF'로** ①**최근 대중 통상 동향**, ②**사드 관련 중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**, ③**중국 현지 진출 기업 및 대중 수출기업**을 위한 **범부처 피해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대책** 등을 논의했다.

<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개요 >

○ **일시/장소 :** '17. 9. 13.(수) 10:30~11:30/ 서울

○ **참석자 :** (정부) 산업부(주재:강성천 통상차관보), 외교부, 중기부, 문체부, 기재부, 해수부, 복지부, 농식품부, 법무부, 식약처 등
(유관기관) 무역협회, 코트라, 산업연구원 등

□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"최근 **사드 4기 임시 추가배치**에 따라 **대중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**하고 있으며, **범부처 역량을 결집**해 향후 **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.**"라고 강조했다..

○ 아울러, "중국의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우리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**해 적극 지원하겠다."라고 말했다.

□ 이를 위해, **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총력 대응**해 나가기로 했다.

❶ **유통·관광분야 등 중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**해 나가기로 했다.

○ 정부는 그간에도 **각종 고위급 회담,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이행기구 등 양자채널 및 세계무역기구(WTO) 등 다자 채널로 중국에 조치 해소**를 요구하여 왔으며, 앞으로도 **모든 계기에 중측에 강력 촉구**하기로 했다.

* 한중 통상장관회담('16.7월 이후 3차례 개최), 한중 FTA공동위('17.1), 中 동북아 박람회('17.9) 등 계기 '중측 조치 철회와 우리기업 애로 해소'를 지속 촉구

○ 특히,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**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**하고, **오는 10월 예정한 세계무역기구(WTO) 서비스무역이사회**에서 **유통·관광분야 중국의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**할 계획이다.

* '17.3월.6월 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측조치의 부당성 기제기

○ 아울러, **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**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(WTO)**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중**이다.

- 정부는 사드 관련 중국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**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**해왔으며, **관계부처 및 업계, 전문가 등과 소통**하면서 **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**하고 있다.

❷ 또한, 대중 현지 진출기업 및 수출 기업 등 **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**를 위해, **현재 시행중인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**하고, **추가 지원 대책도 적극 강구**해 나가기로 했다.

○ 현재, **관광·유통·소비재 분야 등 피해기업 지원**을 위해 △**애로 상시 접수**, △**긴급경영안정자금,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자금 지원**, △중국 법령설명회, 인증 지원 등 **규제대응**, △**무역보험 및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시행중**이다.

<사드 관련 피해기업 주요 지원 현황>

구분	주 요 내 용
애로 접수	•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 (→ 중국무역애로지원특별TF로 개편(9.13)) (산업부) * 기업 애로 상시접수 및 컨설팅.법률상담 등 지원
	• 재중 현지공관 사드관련 경제분야 대응 TF 운영 (외교부) * 현지진출기업, 주중대사관 등 현지공관간 정기간담회 등 개최
자금 지원	• (관광) 관광기금 특별융자*(문체부), 신·기보 특례보증 지원**(금융위) 등 * ('17.上) 1,284억원, 총 246개社 지원, ('17.下) 600억원, 총 222개社 지원대상 선정 ** 보증료율 우대(최대 1.0%) 및 보증비율 상향(85%→95%)
	• (중소기업) 긴급경영안정자금 (중기부) * ('17년) 총 1,250억원 → '17.9월 현재 49개社 약 80억원 지원
	• (소상공인) 소기업·소상공인 특례보증 (중기부) * 보증료율 인하(1.0→0.8%) 및 보증 비율 상향(85→100%)
규제 대응	• 강화된 중국 법령에 대한 대응력 제고 지원 (산업부, 식약처 등) * 식품·화장품 등 대중 수출설명회/중국 규정 부적합 사례 교육 등('17.2·3·6), 대중수출 전국 순회설명회('17.6) 등
	• 해외인증 획득 지원(중기부), 인증규격 충족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(산업부), 대중 수출 애로기업 단기 컨설팅 지원 (중기부) 등
	•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을 통한 무역·투자·지식재산권 등 분쟁 관련 무료 법률상담, 설명회 개최 등 법률지원 (법무부)
	• 농식품분야 현지 관세, 통관, 법률 등 전문기관 자문 제공 (농식품부)
	• 화장품분야 中 현지 법령·특허·규제정보 등 제공(http://www.allcos.biz) (복지부)
무역보험·마케팅 등 지원	• 수출 신용보증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, 보증료 50% 할인, 매출・수출 감소시에도 보증한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 •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제3국으로 이전시 해외사업금융 보험료 최대 30%할인, 부보율(전체보험가액 대비 무보 책임비율) 우대(95%→100%) • 해외 전시회 지원 한도 2배 확대 등 (산업부)
	• 재중 한인회 및 中企협회 한국 상품 판촉전 등 지원 (외교부)
	• 농식품 해외판촉 지원금액(회당 5천만원→7천만원)/비율(80%→90%) 상향 (농식품부)
	• 수산물 분야 수출 다변화 지원 (해수부) * 시장 개척단 파견(베트남, 대만) 수출유망상품 개발지원('17년 60억원) 등
	• 동남아.일본 등 항공사 노선 다변화 지원*, 한-중 항공노선 운수권 의무사용기간(20주) 면제 등 (국토부) * 태국 취항 확대, 지방공항 국제선 유치시 지원금 확대(0.6억→60억) 등
제도적 지원	•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(국세청, 기재부) •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, 신규 면세점 영업개시일 연기 등 (관세청, 기재부)

- 정부는 **현재 시행중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**하고, **필요시 시행기간을 연장**해 **피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**하기로 했다.

○ 이**번 회의에서** 정부와 지원기관은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·개편하여「**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/F**」**를 금일(9.13일) 부터 무역협회 '차이나 데스크(☎1380)'에 설치·운영**하기로 했다.

- 「특별T/F」는 **무역협회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코트라: KOTRA)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지원기관이 접수한 중국 진출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**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이를 통해 기업은 **보다 편리하게 한번에(One-Stop) 맞춤형 지원 서비스**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○ 또한, 최근 **중국 현지에서 경영상의 애로**를 겪고있는 **우리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.**

- 코트라 '**글로벌파트너링**(GP: Global Partnering) **사업**'을 활용해, **9월 부터 중국 유력 완성차 업체 및 북미·인도 등 유망 시장의 국제기업 등을 대상**으로 **협력수요 발굴 활동을 본격 전개**해, **공급선 다변화**를 지원할 계획이다.

< 글로벌파트너링 활용 자동차부품업체 지원계획 >

○ **(매칭수요조사)** 중국내 코트라 무역관(19개소)을 통해 中 현지 완성차업체 대상 소재부품 수요 및 납품 가능한 국내·중국 진출 소재부품업체 조사·발굴 (9월~10월)

○ **(GP행사)**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GP상담회, 1:1 상담회 등 개최 (10월~12월)

○ **(대체시장 발굴)** 북미, 인도, ASEAN 등 대체 판로개척을 위해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GP상담회 등에 중국 현지진출 소재부품업체 우선 참여지원 (9월~계속)

○ 아울러, 관광분야에서는 **일본 · 동남아권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**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, 농식품 · 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 대해 **중국 현지 및 제3국 시장 대상 상품 판촉전,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**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**해외 인증규격,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**도 **집중**하기로 했다.

❸ 한편, 정부는 **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**을 위해 **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계속해서 강화**하기로 했다.

○ 특히, **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에 규정된 협력사업**인 △**한중 산업협력단지**, △**지방경제 협력 시범사업 등 프로젝트의 성과 발굴**을 적극 추진하고,

○ **중국의 일대일로 정책**과 연계해 **양국간 인프라 협력 추진 방안** 등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.

□ 정부는 향후에도 '**한중통상점검 TF'를 정례적으로 개최**하여, **관계부처 및 업계와 합동**으로 **대중 통상현안 조기 해소**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조수정 과장(044-203-5690), 김민혜 서기관(5699) 및 활용촉진과 박용민 과장(044-203-4150), 신영수 사무관(41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